

사육농가, 백색계가 경제성 다소 유리

■ 취재/함경숙 기자

갈색란과 백색란, 그리고 갈색계와 백색계의 경제성 순위분석에 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경제성의 순위분석이라는 것이 난가가 좋을 때 또는 난가가 허락되어 생산비 수준에서 맴돌 때 등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생산자인 사육농가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농장에서 사양기록부의 철저한 작성이라든가 경영성적을 분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를 뒷받침해 줄만한 이론적인 자료는 없는 편이다.

단지 한 농장 내에서 백색계와 갈색계를 키워 보면서 느끼는 특징 및 장단점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비교하여 정리해 보는 것이 훨씬 현실에 가까울 것이다.

경기도 이천, 광주 그리고 천안에서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전병훈, 이석훈, 김경렬씨의 의견을 종합 요약해 본다.

생산농가에서 백색계를 사육함으로써 생기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백색계의 체구가 작아 에너지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사료섭취량도 적으며 육성기간 중의 비용도 절감된다.

둘째, 평균체중이 1.8kg 정도

이기 때문에 수당 차지하는 케이지 면적이 적으므로 2수 수용도 가능하여 동일 면적상의 사육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케이지 손상도 적어 케이지의 경제수명이 갈색계 농장에서 보다 긴 편이다.

셋째, 병아리 즉, 초생추 구입가격이 싸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산비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원가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예를 들어 갈색 병아리가 750원일 경우 600원 정도이다.(각 지역이나 품종, 그리고 계란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

넷째, 품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특란을

표1. 연도별 산란노계가격

(단위 : 원/수당)

| 구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평균 |
|-----|---------|-------|-------|-------|-------|-------|-------|-------|-------|-------|-------|-------|-------|-------|
| 89년 | 백색(A) | 1,138 | 1,113 | 1,138 | 1,025 | 625 | 588 | 660 | 793 | 628 | 650 | 613 | 720 | 808 |
| | 갈색(B) | 1,675 | 1,663 | 1,775 | 1,125 | 963 | 975 | 1,100 | 1,433 | 1,100 | 900 | 1,038 | 1,100 | 1,237 |
| | (A)/(B) | 147.2 | 149.4 | 156.0 | 109.0 | 154.1 | 165.8 | 166.6 | 181.0 | 175.2 | 138.5 | 169.3 | 152.8 | 153.1 |
| 90년 | 백색(A) | 725 | 888 | 1,250 | 1,450 | 1,213 | 1,140 | 1,175 | 1,280 | 950 | 763 | 790 | 563 | 1,016 |
| | 갈색(B) | 1,150 | 1,388 | 1,825 | 2,250 | 1,963 | 1,928 | 1,775 | 1,910 | 1,525 | 1,088 | 1,010 | 838 | 1,554 |
| | (A)/(B) | 158.6 | 156.3 | 146.0 | 155.0 | 161.8 | 169.1 | 151.1 | 149.2 | 160.5 | 142.6 | 127.8 | 148.8 | 153.0 |
| 91년 | 백색(A) | 575 | 650 | 600 | 550 | 513 | 300 | | | | | | | |
| | 갈색(B) | 913 | 1,150 | 1,000 | 950 | 938 | 600 | | | | | | | |
| | (A)/(B) | 158.8 | 176.9 | 166.7 | 172.8 | 182.8 | 200 | | | | | | | |

※(B)/(A)는 백색계를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갈색계의 가격비율을 표시한 것임.

표2. 경기도 이천 대경농장의 산란을 비교표

| 주령 | 갈색계(와렌) | 백색계(델타) | 주령 | 갈색계(와렌) | 백색계(델타) |
|------|-------------|-------------|------|-------------|-------------|
| 23주령 | 20.3 (50.0) | 49.9 (60.0) | 46주령 | 86.6 (86.3) | 87.3 (86.4) |
| 24 | 50.2 (74.0) | 74.3 (79.0) | 47 | 86.0(85.85) | 87.3 (86.1) |
| 25 | 74.1 (85.0) | 84.0 (88.0) | 48 | 82.5 (85.4) | 87.4 (85.7) |
| 26 | 87.0 (90.0) | 87.3 (91.0) | 49 | 82.5(84.95) | 87.9 (85.4) |
| 27 | 91.4 (92.0) | 88.6 (92.0) | 50 | 82.1 (84.5) | 87.2 (85.0) |
| 28 | 91.4 (93.0) | 88.0 (92.2) | 51 | 83.5 (83.8) | 86.7 (84.7) |
| 29 | 92.7 (93.5) | 88.6 (92.3) | 52 | 83.5 (78.2) | 86.2 (84.3) |
| 30 | 93.3 (93.5) | 90.5 (92.0) | 53 | 83.5 (82.4) | 85.0 (83.8) |
| 31 | 93.0(93.05) | 90.9 (91.7) | 54 | 82.6 (81.7) | 85.8 (83.3) |
| 32 | 92.2 (92.6) | 90.4 (91.3) | 55 | 82.4 (81.0) | 85.7 (82.8) |
| 33 | 92.3(92.15) | 90.3 (91.0) | 56 | 82.7 (80.3) | 85.2 (82.3) |
| 34 | 91.5 (91.7) | 89.7 (90.6) | 57 | 83.0 (79.6) | 84.7 (81.8) |
| 35 | 90.7(91.25) | 89.5 (90.3) | 58 | 82.2 (78.9) | 84.7 (81.3) |
| 36 | 90.0 (90.8) | 89.8 (89.9) | 59 | 81.0 (78.2) | 84.7 (80.8) |
| 37 | 89.6(90.35) | 87.2 (89.6) | 60 | 82.2 (77.5) | 83.6 (80.3) |
| 38 | 90.1 (89.9) | 87.3 (89.2) | 61 | 81.2 (76.8) | 82.4 (79.8) |
| 39 | 90.1(89.45) | 87.2 (88.9) | 62 | 79.5 (76.1) | 81.4 (79.3) |
| 40 | 90.6 (89.0) | 86.3 (88.5) | 63 | 79.5 (75.4) | 81.4 (78.8) |
| 41 | 90.3(88.55) | 84.0 (88.2) | 64 | 78.3 (74.7) | 81.7 (78.2) |
| 42 | 90.5 (88.1) | 86.4 (87.8) | 65 | 71.5 (74.0) | 82.4 (77.7) |
| 43 | 89.1(86.65) | 87.2 (87.5) | 66 | 71.3 (73.3) | 82.0 (77.1) |
| 44 | 88.7 (87.2) | 86.2 (87.1) | 67 | 70.8 (72.6) | • (76.6) |
| 45 | 87.9(86.75) | 85.6 (86.8) | 68 | 68.7 (71.9) | • (76.0) |

※1) ()안은 표준산란 권장비율임.

2) 델타브델타 67, 68주령은 농장 대표의 사정에 의해 기록하지 못했음

이 높아졌으며 산란율도 높은 편이다.

다섯째, 강제환우후 산란율이 8개월 정도까지 지속되고 특란과 왕란의 생산이 증가되며 산란후기에 갈수록 헨데이 산란율이 갈색계에 비해 유리하다.

여섯째, 계분 내의 수분함량이 적어 계분이 덜 질기 때문에 계분처리시 용이하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파생되는 차이점으로 간주하고 나열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은 갈색계를 사육했을 때의 장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대체적으로 닭이 온순하기 때문에 백색계가 잘 놀라서

생기는 산란율의 저하 현상이 거의 없다.

둘째, 노계를 도태시킬 때 가격면에서 백색계에 비해 갈색계가 50% 이상 차이가 생기므로 노계가 가격이 좋은 시기에 처분한 그 비용으로 중추 한마리를 맞바꿔 입추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계란판매가 용이하다. 농장의 위치에 지역적인 특성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계란이 체화될 때 갈색란은 백색란에 비해 농장출하가 쉬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농장 수취가격을 2원 정도 비싸게 받는 예도 있다.

실제로 생산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어느 쪽이 경제적인가

를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백색계가 사육농가들은 생산비면에서 다소 유리하다는 견해로 집약된다.

하지만 현재처럼 백색란의 판매가 부진하여 백색계 사육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유통상이나 판매면에서 갈색계가 백색계에 비해 시장성이 좋기 때문만이 이 흐름에 동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계란유통 구조상 야기되는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되리라 예상되며 백색란의 소비부진으로 백색계가 멸종될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때라 본다.

